

부부클리닉 방문부부의 MBTI 성격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Relationships between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Psychological Type and Marital Satisfaction, Divorce Proneness, Positive Affect, and Conflict Regulation in Clinic Couples

Kong, Seong Sook

Professor, School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psychological type and marital satisfaction, divorce proneness, positive affect, and conflict regulation in couple visiting a clinic. **Methods:** Couples (n=62) who visited "M" couple clinic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June 2009 using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Marital Status Inventory, Positive Affect Inventory, and Conflict Regulation Inventory. **Results:** The coupl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positive affect, and conflict regulation according to similarities between spouses in MBTI types. However,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vorce proneness of husband according to a similarity in the Sensing/Intuition indicator. They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vorce proneness, positive affect, and conflict regulation between the couples for ISTJ (Introversion, Sensing, Thinking, Judging) or ESTJ (Extraversion, Sensing, Thinking, Judging) types compared to other couples. **Conclusion:** When nurses counsel couples, they should understand that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type between spouses affects their marital relationship. In addition, nurses should educate couples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ccording to the couple's types and help them to understand each other, especially for couples where one spouse is the ISTJ/ESTJ type. These interventions will improve marital satisfaction and prevent the divorce in these couples.

Key words: Myers-briggs type indicator, Marital relationship, Divorce, Affect, Marital conflict

1.

한국의 이혼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 이혼 건수는 1991년 49,205건에서 2003년

167,100건으로 증가였다가 그 이후로 차츰 감소추세를 보여 2008년 116,535건으로 나타났다. 인구 천 명당 조이혼율로 보면 2007년에는 2.5로 나타났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2008년 자료에서 이혼 사유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격차이 47.8%, 경제문제 14.2%, 배우자 부정, 가족 간 불화,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각각 6-8%로 나타나 부부간의 성격차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주요어 : 성격유형,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ong, Seong Sook

School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366-1 Ssangyong-dong, Cheonan 330-090, Korea
Tel: 82-41-570-2488 Fax: 82-41-575-9347 E-mail: kongsun@sch.ac.kr

투고일 : 2010년 1월 29일 심사위원회 : 2010년 2월 1일 게재확정일 : 2010년 5월 19일

며, 성격차이는 2005년부터 2007년에도 전체 이혼사유 46.9-49.8%를 보여 중요한 이혼사유로 보고되었다.

이혼율의 증가는 결혼만족도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Kwon & Chae, 1999), 이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조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배우자의 특성, 즉 내외통제성, 성격특성, 역할분담 등이 각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거나(Botwin, Buss, & Shackelford, 1997; Kong, 2008),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방식이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의 관계(Park & Ko, 2005; Rogge, Bradbury, Hahlweg, Engl, & Thurmaier, 2006)를 조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부부의 가치관이나 성격의 유사성, 양육방식의 차이와 같은 부부 상호작용적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Heavy, Layne, & Christensen, 1993). 그 중 몇몇 연구자들은 배우자 간의 성격차이가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심각한 요인으로 보고, 부부간의 성격유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바탕으로 한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성격유형검사를 사용하였다(Kim, Hwang, & Kwun, 2007; Lee & Kim, 2005; Yun & Lee, 2000). Jung (1971)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심리적 경향의 선호성(preference)을 고유하게 가지고 태어나며, 일생을 통하여 환경과 역할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달해나간다고 하였다. 타고난 선호경향에 따라 인간은 같은 사물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다르게 느끼고 판단하며, 판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도 서로 다르다. 즉, 선호경향에 따라 인간의 행동은 규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며, 각 유형에 따라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형(Extraversion; E) 또는 내향형(Introversion; I)으로, 외부의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이 감각형(Sensing; S) 또는 직관형(Intuition; N)으로,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사고형(Thinking; T) 또는 감정형(Feeling; F)으로, 그리고 이에 따른 일상생활의 행동양식이 판단형(Judging; J) 또는 인식형(Perceiving; P)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유형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부 571쌍 중에서 4개 지표가 모두 일치한 부부가 10%, 3개 지표 28%, 2개 지표 38%, 1개 지표 18%,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부부 6%로 나타나 성격유형이 유사한 부부가 다소 많았다(Vinacke, Shannon, Palazzo, Balsavage, & Cooney, 1988). 일반적으로 부부는 상호보완성을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서로 반대 유형의 더 매력을 느끼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나, 성격유형에 유사성이 많은 부부와 상이성이 많은 부부에게는 각각의 강점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Shim, & Je, 1995). 선행연구에서는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성격

유형에서 일치하는 지표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부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의 경우 성격유형에 있어 부부간에 얼마나 유사성을 보이는가, 그리고 그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혼가능성(divorce proneness)’도 결혼만족도 변인과 더불어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Kong, 2008). ‘이혼가능성’이란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상담자에게 말하는 등 이혼을 시도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Previti & Amato, 2003). Amato와 Hohmann-Marriott (2007)는 결혼만족도가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이르는 부부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Kong (2008)도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이혼가능성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혼가능성에는 결혼만족도 이외에 다른 변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간 성격의 유사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만을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이혼가능성이 부부의 성격의 유사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혼만족도나 이혼가능성 변인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긍정적 감정과 갈등조정방식이 있는데, 긍정적 감정은 부부간에 상대방을 공감(empathy)하고 인정(validation)하도록 돕는 것을 말하며(Davila, 2003), 갈등조정방식은 부부간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에 대해서도 상호 조정해가는 기술을 의미한다. Gottman과 Notarius (2000)는 일상생활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켜 부부관계의 강점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 이혼예방과 부부관계증진에 더 핵심요인이며, 이는 결혼만족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했다. Gottman (1999)은 이러한 긍정적 감정을 이루는 중요한 하부요인으로 ‘애정지도(love map)’,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fondness & admiration system)’,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을 위한 시도(turning toward)’를 제시하였다. ‘애정지도’는 부부가 배우자의 심리적 내면세계에 대해 서로 잘 아는 것을 의미하며,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부부간에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남아있고 표현되는가를 말하고, ‘정서적 교감을 위한 시도’는 부부가 취미 및 여가활동, 가사활동, 공감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부부의 갈등조정방식도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우울증 등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Choi, 1994),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의 경우 갈등을 동의, 협상, 유머로 해결하고,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부의 경우 갈등을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경향이 높고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사용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9). Gottman (1999)은 부부가 대화를 시작할 때 한쪽 배우자의 부정적이고 거칠게 시작되는 대화(harsh start-up)가 갈등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부드럽게 대화시작하기(softened start-up)', 관계가 악화되려는 시점에서 '회복시도하기(repair attempt)', '배우자의 영향 수용하기', '타협하기' 등의 갈등 조정방식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 결혼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긍정적 감정 및 갈등조정방식과 성격유형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지금까지 행해진 바 없으나, 본 연구자는 부부상담을 위해 내원한 부부에게서 성격유형에 따라 긍정적 감정 및 갈등조정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사례들을 접하게 된다. 내향형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므로 '정서적 교감을 위한 시도'를 외향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사고형은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으로 인해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제한적이어서 긍정적 감정과 관련성을 보일 수 있다(Kim et al., 1995). 감각형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직관형은 은유적 표현을 선호하므로, 감각형/직관형에 따라 갈등상황 후 배우자에게 회복을 시도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배우자의 회복시도를 알아채지 못하여 갈등이 오히려 악화되기도 한다(Gottman, 1999). 이러한 차이는 4개의 지표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16가지 유형에 따라서도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에 각각의 특성이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ISFP 유형은 예술가적 기질이 있고 평화를 지향하므로 부부갈등 후 조속한 회복을 시도하는 반면, ESTJ 유형은 자신의 기준이 객관적이라고 믿으므로(Kim et al., 1995)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상대방에게 관계회복을 시도하는 면에서 취약하다. 이러한 특성을 밝혀낼 수 있다면 이는 부부상담에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또는 외국에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전체 유형별로, 그리고 각 지표별로 주요변인들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 지표에서 유형이 같은 부부와 상이한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부부의 성격유사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한다.

수년 전부터 정신간호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울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해왔다. 이에 간호학 분야에서 부부치료 및 상담 영역에서 담당할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영역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다년간에 걸친 부부 치료 및 교육에 대한 경험과 서울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 및 이혼상담위원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부의 성격유형이 부부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해왔으며, 실제로 서로의 성격유형의 특성을 이해하는 상담을 통해 관계를 증진시키거나 이혼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Williams & Tappan, 1995).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중재방안을 계획함에 있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부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가 매우 미흡하며 특히 부부치료를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의 성격유형변인이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부부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예방하고 부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2.

본 연구에서는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를 대상으로 각 배우자의 MBTI 성격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을 조사하고, 부부간의 성격유형 일치여부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클리닉 방문 부부의 일반적 특성과 MBTI 성격유형,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각 배우자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부부간의 MBTI 성격유형 일치여부에 따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각 배우자의 MBTI 성격유형 중 ISTJ 및 ESTJ 집단과 나머지 유형의 집단 간에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1.

본 연구는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를 대상으로 각 배우자의 MBTI 성격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을 조사하고, 부부간의 성격유형 일치여부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부부클리닉 방문 부부는 심각한 부부갈등을 경험하여 상담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부부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M 부부클리닉에 내원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클리닉의 원장 및 치료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자료 수집 과정을 설명하고 윤리적으로 환자들의 인권에 침해되지 않음을 확인받고 자료 수집을 승인받았으며, 연구 대상자들에게 직접 연구목적과 방법을 서면과 구두로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부부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연구자료는 정해진 연구 목적과 부부상담을 위한 기초자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균값 비교를 위해 t-test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간 효과크기에서 유의수준 $\alpha=.05$ 를 기준으로 검정력 .8을 유지하기 위해 64명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Borenstein, Rothstein, & Cohen, 1997). 이에 연구 참여에 동의한 86쌍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으나, 응답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62쌍(72.1%)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첫 회기에 상세한 설명 후 배부하고, 서로 상의하지 말고 각자 작성하여 2회기까지 가져오도록 하였고 작성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검사 결과는 부부상담에서 필수적으로 부부 사이에 공유되어야 하는 자료이므로 부부 두 사람에게 모두 공개하여 설명을 제공하였다. 단, 이혼가능성에서 각 배우자가 비밀리에 변호사 상담을 하는 등 특별히 비밀보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개별면담에서 설명하였다.

3.

1) MBTI 성격유형

MBTI 성격유형 검사는 Jung (1971)의 성격유형론을 바탕으로 Briggs와 Myers에 의해 만들어지고 Kim과 Sim (1990)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되고 표준화된 MBTI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선호를 나타내는 지표는 총 4가지이며, 내향성-외향성(I/E 지표), 감각-직관(S/N 지표), 사고-감정(T/F 지표), 판단-인식(J/P 지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채점용 GS형 9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각 지표별로 Cronbach's α 값이

I/E 지표 .75, S/N 지표 .82, T/F 지표 .80, J/P 지표 .84였다.

2)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를 측정하기 위해 Roach, Frazier와 Bowden (1981)의 결혼만족도 도구(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Lee와 Yoo (1986)가 번안한 48문항 중에서 변별지수가 높은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개발 당시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3) 이혼가능성

이혼가능성을 사정하기 위해서 Weiss와 Cerreto (1980)가 개발한 결혼상태 평가도구(Marital Status Inventory)를 Korea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institute (200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이혼이나 별거에 대해 배우자 또는 변호사 등과 상담여부, 자녀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여부 등의 내용으로 14문항이며, 예 1점, 아니요 0점의 2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개발 당시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4) 긍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positive affect)이란 부부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서로에 대한 관심(interest), 흥미진진함(excitement), 애정(affection), 유머(humor), 인정(validation), 즐거움과 여가를 함께 하는 것(amusement, pleasure, joy), 지지(support) 등이 포함된다(Gottman, 1999). 본 연구에서는 Gottman (1999)이 개발한 '애정 지도' 20문항,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 20문항, '함께 하고 싶어요' 20문항으로 총 60문항, 2점 척도를 Korea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institute (2004)가 번안한 '긍정적 감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감정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개발 당시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5) 갈등조정방식

갈등조정(conflict regulation)이란 두 가지 유형의 갈등, 즉 해결가능한 문제와 반복적인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것을 말하며, 해결가능한 문제에 대한 갈등조정기법에는 '부드럽게 대화 시작하기', '회복시도하기', '배우자의 영향 수용하기', '타협

하기' 등이 있다(Gottman, 1999). 본 연구에서는 Gottman (1999)이 개발한 '부드럽게 대화시작하기' 20문항, '배우자의 영향 수용하기' 20문항, '회복시도하기' 20문항, '타협하기' 20문항, 2점 척도를 Korea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institute (2004)가 번안하고 '부드럽게 대화시작하기' 13문항, '배우자의 영향 수용하기' 15문항, '회복시도하기' 15문항, '타협하기' 15문항, 총 58문항으로 재구성한 '갈등조정 방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조정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개발 당시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4.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을 사용하여 입력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부부의 인구학적 특성,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서술하였다.

둘째,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은 각 지표별, 유형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MBTI 성격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부부간의 MBTI 각 지표별 일치여부 및 일치하는 지표의 개수에 따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

정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 또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넷째, 각 배우자의 MBTI 성격유형 중 ISTJ 및 ESTJ 집단과 나머지 유형의 집단 간에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로 분석하였다.

1.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부부는 총 62쌍으로, 평균 연령은 아내 36.7세, 남편 38.2세로 나타났다. 결혼 연수는 평균 8.51년이었고, 자녀 수는 1.23명이었으며, 부부의 결혼형태는 연애결혼이 48쌍(77.4%)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초혼이 77.4%로 가장 많았고, 사별 후 재혼 4.8%, 이혼 후 재혼 17.7%를 차지하였다. 남편은 전체가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아내의 경우 53.2%가 직업을 갖고 있어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부부만' 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57쌍(92.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먼저 결혼만족도는 아내 30.69점, 남편 34.93점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혼가능성에서는 아내 6.54점, 남편 4.13점으로 아내의 이혼가능성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긍정적 감정의 총점은 아내 85.11점, 남편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62)

Variables	Category	n (%) or M (SD)
Age of wife (yr)		36.7 (6.3) (Range: 25-56)
Age of husband (yr)		38.2 (6.5) (Range: 28-60)
Number of children		1.23 (0.81) (Range: 0-3)
Years of marriage (yr)		8.51 (7.89) (Range: 1-33)
Marital status	First marriage	48 (77.4)
	Second marriage via death of partner	3 (4.8)
	Second marriage via divorce	11 (17.7)
Type of marriage	Love marriage	48 (77.4)
	Match marriage	3 (4.8)
	Mixed type	11 (17.7)
Number of children	None	15 (24.2)
	1	21 (33.9)
	2	25 (40.3)
	3	1 (1.6)
Wife's job	None/home maker	29 (46.8)
	Has a job	33 (53.2)
Type of family life	Only couple	14 (22.6)
	Couple and children	43 (69.4)
	With husband's family	4 (6.5)
	With wife's family	1 (1.6)

Table 2. Major Variables of the Couples

Variables	Wife (n=62)		Husband (n=62)	
	Mean (SD)	Range	Mean (SD)	Range
Marital satisfaction	30.69 (8.74)	9-45	34.93 (8.92)	5-51
Divorce proneness	6.54 (4.07)	0-14	4.13 (3.28)	0-14
Positive affect	85.11 (10.05)	67-107	90.04 (12.21)	67-116
Love map	31.85 (3.61)	23-39	32.42 (3.57)	23-40
Fondness & admiration	26.45 (4.61)	20-38	28.56 (5.04)	20-39
Turning toward	26.81 (4.77)	20-38	29.06 (5.53)	20-40
Conflict regulation	88.63 (7.43)	75-105	93.35 (5.67)	81-104
Softened start-up	21.95 (2.40)	17-26	22.27 (2.95)	15-26
Repair attempt	20.56 (2.96)	16-28	21.79 (2.86)	17-30
Accepting influence	24.19 (2.67)	18-29	25.84 (2.20)	20-30
Compromise	21.92 (3.36)	16-30	23.45 (3.25)	16-30

90.04점으로 남편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하부 요인 중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한 '애정지도'는 아내 31.85점, 남편 32.42점, 배우자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아내 26.45점, 남편, 28.56점, 배우자와 '함께 하고 싶어요'는 아내 26.81점, 남편 29.06점으로 3개 요인에서 모두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갈등조정방식의 총점도 아내 88.63점, 남편 93.35점으로 남편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하부 요인 중 '부드럽게 대화 시작하기'는 아내 21.95점, 남편 22.27점으로 유사한 점수를 보였으나, '회복 시도하기'는 아내 20.56점, 남편, 21.79점, '배우자의 영향 수용하기'는 아내 24.19점, 남편 25.84점, '타협하기'는 아내 21.92점, 남편 23.45점으로 나머지 3개 요인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56.5%로 더 많은 반면 남편은 내향형이 62.9%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을
로

3. MBTI

각 배우자의 MBTI 유형은 각 지표별 분류와 16가지 유형별 분류를 제시하였다(Table 3). I/E 지표에서는 아내가 외향형이

점수를 보인 반면, INFP 유형은 결혼만족도 점수는 36.50점으로 가장 높고 이혼가능성은 2.5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긍정적 감정에서도 94.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ENTP 유형은 긍정적 감정과 갈등조정방식이 각각 76.50점, 88.50점으로 유형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갈등조정방식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ESFJ로 나타났다. Table 3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각 지표별로 2개의 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지표가 없었다.

4. MBTI

먼저 아내와 남편의 MBTI 성격유형의 일치여부를 알기 위해 지표별 일치여부와 4개 지표 중 일치하는 지표의 개수를 산출하였다. I/E 지표가 일치하는 부부는 58.1%, S/N 지표가 일치하는 부부는 69.4%, T/F 지표가 일치하는 부부는 59.7%로 3개 지표에서는 일치하는 부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부보다 더 많았으나, J/P 지표가 일치하는 부부는 38.7%로 일치하지 않는 부부가 훨씬 많았다. 또한 일치하는 지표의 개수는 4개 지표가 모두 일치하는 부부 8.1%, 3개 지표 43.5%, 2개 지표 19.4%, 1개 지표 24.2%였으며, 일치하는 지표가 하나도 없는 부부는 4.8%였다(Table 4).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일치여부에 따른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의 차이를 알기 위해 t-test를 실시하고, 4개의 지표 중 일치한 개수에 따른 차이를 ANOVA로 분석한 결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S/N 지표의 일치여부에 따라 남편의 이혼가능성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21, p<.05$). 즉, 감각-직관 지표가 일치하는 경우보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남편의 이혼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ISTJ/ESTJ

아내의 성격유형이 ISTJ 또는 ESTJ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6명으로 전체의 41.9%였으며, 이들 유형과 기타 유형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주요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내의 이혼가능성($t=2.52, p<.05$), 아내의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t=-2.23, p<.05$), 남편의 긍정적 감정 총점($t=-2.56, p<.05$), 남편의 '애정지도'($t=-2.72, p<.01$), 남편의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t=-2.37, p<.05$), 남편의 갈등조정방식 총점($t=-2.26, p<.05$),

남편의 '부드럽게 대화 시작하기'($t=2.04, p<.05$), '배우자의 영향 받아들이기'($t=-2.54, p<.05$), '회복 시도하기'($t=-2.80, p<.01$) 변인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남편의 성격유형이 ISTJ 또는 ESTJ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9명으로 전체의 46.8%였으며, 이 유형과 기타 유형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주요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내의 '회복 시도하기'($t=-2.16, p<.05$)와 아내의 '타협'($t=-2.33, p<.05$) 변인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5).

본 연구에서는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를 대상으로 각 배우자의 성격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을 조사하고, 성격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를 비롯한 주요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일치여부에 따라 결혼만족도,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감각-직관 지표의 일치여부에 따라 남편의 이혼가능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혼가능성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일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Kwon & Chae, 1999; Park & Ko, 2005)에서도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들(Kong, 2006, 2008)에서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남편보다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더 낮고 이혼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Amato와 Hohmann-Marriott (2007)가 미국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부부에서는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이혼하는 부부에서는 남편보다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부부에서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일반적으로 더 낮은 것은 아내가 결혼생활에서의 의사결정권은 적고 가사의 역할분담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Kwon & Chae, 1999). 또한 긍정적 감정은 총점과 하부요인들에서 모두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갈등조정방식에서도 총점과 하부요인들에서 모두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선행연구(Kong, 2006)에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갈등해결방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Table 4. Mean Differences of Marital Satisfaction, Divorce Proneness, Positive Affect, and Conflict Regulation according to Similarities in MBTI Psychological Types of Couple

Variables	Similarities in MBTI	Category	n (%)	Wife (n=62)			Husband (n=62)		
				M (SD)	t or F	p	M (SD)	t or F	p
Marital satisfaction	I/E	Identical	36 (58.1)	30.78 (7.86)	0.43	.671	35.69 (9.27)	-0.02	.988
		Different	26 (41.9)	29.73 (10.57)			35.73 (8.66)		
	S/N	Identical	43 (69.4)	30.72 (7.50)	0.42	.679	36.12 (9.45)	0.54	.595
		Different	19 (30.6)	29.47 (11.98)			34.79 (7.84)		
	T/F	Identical	37 (59.7)	28.70 (9.14)	-1.77	.082	35.59 (9.94)	-0.12	.903
		Different	25 (40.3)	32.76 (8.44)			35.84 (7.42)		
	J/P	Identical	24 (38.7)	29.13 (10.31)	-0.49	.625	35.83 (7.15)	0.48	.633
		Different	38 (61.3)	31.11 (8.17)			35.63 (10.01)		
	Number of identical type	0	3 (4.8)	43.33 (2.31)	2.23	.077	41.67 (5.77)	1.45	.230
		1	15 (24.2)	28.20 (9.84)			33.40 (8.18)		
		2	12 (19.4)	29.25 (7.93)			33.92 (8.68)		
		3	27 (43.5)	31.22 (8.71)			37.92 (9.64)		
4		5 (8.1)	26.80 (8.11)	31.40 (6.80)					
Divorce proneness	I/E	Identical	36 (58.1)	5.94 (2.96)	-2.00	.050	3.56 (3.30)	-0.70	.485
		Different	26 (41.9)	7.62 (3.61)			4.12 (2.80)		
	S/N	Identical	43 (69.4)	6.53 (3.11)	-0.39	.698	3.23 (2.69)	-2.21	.031
		Different	19 (30.6)	6.89 (3.84)			5.04 (3.58)		
	T/F	Identical	37 (59.7)	6.86 (3.41)	0.63	.531	3.76 (3.07)	-0.10	.918
		Different	25 (40.3)	6.32 (3.24)			3.84 (3.17)		
	J/P	Identical	24 (38.7)	6.71 (3.06)	0.12	.907	3.71 (3.08)	-0.17	.869
		Different	38 (61.3)	6.61 (3.52)			3.84 (3.12)		
	Number of identical type	0	3 (4.8)	3.33 (1.15)	1.76	.149	2.00 (1.73)	1.48	.221
		1	15 (24.2)	8.06 (4.06)			5.00 (3.23)		
		2	12 (19.4)	7.08 (2.99)			4.42 (3.29)		
		3	27 (43.5)	6.11 (2.74)			3.33 (3.05)		
4		5 (8.1)	6.20 (4.27)	2.20 (1.79)					
Positive affect	I/E	Identical	36 (58.1)	86.27 (9.71)	1.08	.287	91.72 (12.72)	1.28	.207
		Different	26 (41.9)	83.50 (10.48)			87.73 (11.31)		
	S/N	Identical	43 (69.4)	84.58 (9.02)	-0.55	.584	90.09 (12.94)	0.04	.966
		Different	19 (30.6)	86.32 (12.26)			89.94 (10.71)		
	T/F	Identical	37 (59.7)	83.24 (9.33)	-1.81	.075	89.97 (13.17)	-0.06	.953
		Different	25 (40.3)	87.88 (10.63)			90.16 (10.89)		
	J/P	Identical	24 (38.7)	83.75 (9.65)	-0.85	.401	87.50 (11.12)	-1.31	.194
		Different	38 (61.3)	85.97 (10.33)			91.66 (12.73)		
	Number of identical type	0	3 (4.8)	101.33 (0.57)	2.50	.052	98.67 (2.89)	0.71	.591
		1	15 (24.2)	84.33 (11.76)			88.00 (11.43)		
		2	12 (19.4)	81.92 (5.62)			87.92 (10.54)		
		3	27 (43.5)	85.11 (9.79)			91.59 (14.00)		
4		5 (8.1)	85.40 (10.78)	87.80 (11.26)					
Conflict regulation	I/E	Identical	36 (58.1)	87.72 (7.46)	-1.13	.261	93.94 (6.04)	0.96	.339
		Different	26 (41.9)	89.88 (7.34)			92.54 (5.11)		
	S/N	Identical	43 (69.4)	87.70 (6.64)	-1.35	.189	93.91 (6.08)	1.16	.252
		Different	19 (30.6)	90.74 (8.79)			92.11 (4.46)		
	T/F	Identical	37 (59.7)	88.03 (7.09)	-0.77	.442	93.03 (4.83)	-0.55	.584
		Different	25 (40.3)	89.52 (7.96)			93.84 (6.79)		
	J/P	Identical	24 (38.7)	89.33 (8.02)	0.59	.557	93.83 (5.86)	0.53	.601
		Different	38 (61.3)	88.18 (7.10)			93.05 (5.60)		
	Number of identical type	0	3 (4.8)	100.33 (8.08)	2.22	.078	97.00 (1.73)	1.49	.217
		1	15 (24.2)	87.40 (6.78)			90.60 (4.34)		
		2	12 (19.4)	89.17 (6.34)			94.50 (7.19)		
		3	27 (43.5)	87.89 (6.81)			93.67 (5.70)		
4		5 (8.1)	88.00 (11.04)	95.00 (4.69)					

I/E=Introversion/Extraversion; S/N=Sensing/Intuition; T/F=Thinking/Feeling; J/P=Judging/Perceiving.

Table 5. Mean Differences of Major Variables between ISTJ/ESTJ Type Couples and other Type Couples

Variables	Groups of MBTI	n (%)	Wife (n=62)			Husband (n=62)		
			M (SD)	t	p	M (SD)	t	p
Marital satisfaction	ISTJ/ESTJ (W)	26 (41.9)	28.62 (8.29)	-1.28	.204	33.58 (9.95)	-1.62	.111
	Others (W)	36 (58.1)	31.58 (9.43)			37.25 (7.94)		
	ISTJ/ESTJ (H)	29 (46.8)	28.89 (9.82)	-1.18	.241	36.93 (8.29)	1.01	.318
	Others (H)	33 (53.2)	31.60 (8.21)			34.64 (9.48)		
Divorce proneness	ISTJ/ESTJ (W)	26 (41.9)	7.84 (3.08)	2.52	.014	4.19 (2.67)	0.87	.388
	Others (W)	36 (58.1)	5.78 (3.26)			3.50 (3.36)		
	ISTJ/ESTJ (H)	29 (46.8)	6.41 (3.65)	-0.51	.612	3.44 (2.86)	-0.82	.418
	Others (H)	33 (53.2)	6.84 (3.05)			4.09 (3.28)		
Positive affect	ISTJ/ESTJ (W)	26 (41.9)	83.50 (9.27)	-1.08	.287	85.58 (9.30)	-2.56	.013
	Others (W)	36 (58.1)	86.28 (10.55)			93.28 (13.13)		
	ISTJ/ESTJ (H)	29 (46.8)	83.97 (10.01)	-0.84	.404	92.31 (14.28)	1.35	.185
	Others (H)	33 (53.2)	86.12 (10.14)			88.06 (9.86)		
Love map	ISTJ/ESTJ (W)	26 (41.9)	32.27 (3.29)	0.76	.448	31.04 (2.99)	-2.72	.009
	Others (W)	36 (58.1)	31.56 (3.85)			33.42 (3.66)		
	ISTJ/ESTJ (H)	29 (46.8)	31.28 (3.91)	-1.19	.240	32.89 (4.23)	0.99	.328
	Others (H)	33 (53.2)	32.36 (3.31)			32.00 (2.88)		
Fondness & admiration	ISTJ/ESTJ (W)	26 (41.9)	24.96 (3.46)	-2.23	.029	26.84 (3.89)	-2.37	.021
	Others (W)	36 (58.1)	27.52 (5.07)			29.81 (5.44)		
	ISTJ/ESTJ (H)	29 (46.8)	26.31 (4.62)	-0.22	.823	29.17 (5.56)	0.89	.377
	Others (H)	33 (53.2)	26.57 (4.66)			28.03 (4.54)		
Turning toward	ISTJ/ESTJ (W)	26 (41.9)	26.27 (4.70)	-0.75	.455	27.69 (4.41)	-1.69	.097
	Others (W)	36 (58.1)	27.19 (4.83)			30.06 (6.08)		
	ISTJ/ESTJ (H)	29 (46.8)	26.38 (5.15)	-0.66	.513	30.24 (6.24)	1.59	.117
	Others (H)	33 (53.2)	27.18 (4.45)			28.03 (4.67)		
Conflict regulation	ISTJ/ESTJ (W)	26 (41.9)	87.04 (6.51)	-1.45	.153	91.50 (4.68)	-2.26	.027
	Others (W)	36 (58.1)	89.78 (7.91)			94.69 (5.98)		
	ISTJ/ESTJ (H)	29 (46.8)	87.00 (7.01)	-1.64	.106	92.79 (5.37)	-0.73	.469
	Others (H)	33 (53.2)	90.06 (7.59)			93.84 (5.94)		
Softened start-up	ISTJ/ESTJ (W)	26 (41.9)	22.23 (2.17)	0.78	.441	23.15 (2.22)	2.04	.045
	Others (W)	36 (58.1)	21.75 (2.56)			21.64 (3.27)		
	ISTJ/ESTJ (H)	29 (46.8)	22.59 (2.21)	2.00	.050	22.24 (2.84)	-0.08	.935
	Others (H)	33 (53.2)	21.39 (2.44)			22.30 (3.09)		
Accepting influence	ISTJ/ESTJ (W)	26 (41.9)	23.54 (2.18)	-1.67	.101	25.04 (2.18)	-2.54	.014
	Others (W)	36 (58.1)	24.67 (2.91)			26.42 (2.06)		
	ISTJ/ESTJ (H)	29 (46.8)	23.79 (2.59)	-1.11	.271	26.00 (2.28)	0.54	.593
	Others (H)	33 (53.2)	24.54 (2.72)			25.69 (2.16)		
Repair attempt	ISTJ/ESTJ (W)	26 (41.9)	19.84 (2.69)	-1.65	.104	20.65 (2.19)	-2.80	.007
	Others (W)	36 (58.1)	21.08 (3.06)			22.61 (3.04)		
	ISTJ/ESTJ (H)	29 (46.8)	19.72 (2.51)	-2.16	.035	21.34 (2.69)	-1.15	.254
	Others (H)	33 (53.2)	21.30 (3.16)			22.18 (2.99)		
Compromise	ISTJ/ESTJ (W)	26 (41.9)	21.42 (3.09)	-0.99	.327	22.65 (2.65)	-1.67	.101
	Others (W)	36 (58.1)	22.28 (3.54)			24.02 (3.54)		
	ISTJ/ESTJ (H)	29 (46.8)	20.90 (3.15)	-2.33	.023	23.21 (3.11)	-0.55	.583
	Others (H)	33 (53.2)	22.82 (3.32)			23.67 (3.41)		

I=Introversion; E=Extraversion; S=Sensing; T=Thinking; J=Judging; W=Wife; H=Husband.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며 이성적 대처 및 외부 도움 요청 등의 갈등해결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여 부부갈등해결에 있어 아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Choi & Noh, 1994; Lee & Kim, 2005). 실제로 부부클리닉을 방문하는 부부를 면담한 결과, 대부분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이혼을 제안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에,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부클리닉을 방문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위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Kong (2006)은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에게서 한쪽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는 높고 다른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는 낮은 경우가 흔히 나타나므로, 부부상담을 통해 결혼만족도가 낮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것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요인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해주어 부부가 그들의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해나갈수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성격유형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을 때 아내의 ESTJ가 2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ISTJ 16.1%를 보였으며, 남편은 ISTJ가 3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ESTJ 16.1%를 보였다. 이는 한국의 표준치에서(Kim, Shim, & Je, 1995) 여자의 경우 ISTJ 20.3%, ESTJ 14.8%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서 ISTJ는 더 적었고 ESTJ는 상당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한국의 표준치 남자의 경우 ISTJ 22.2%, ESTJ 13.4%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서 두 가지 유형의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아내의 경우 이 두 가지 유형이 전체의 41.9%에 이르고 남편은 46.8%를 보여 한국의 표준치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를 대상으로 성격유형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그 수치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클리닉 방문 부부에게 있어 이 두 가지 유형이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본 연구자의 임상경험으로도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부부의 경우 기타 유형의 부부보다 긍정적 감정이 더 적고 갈등 해결방식이 더 부정적인 것을 관찰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나머지 유형들과 비교하여 주요 변인들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MBTI 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조사한 결과, INTJ 유형은 결혼만족도 점수는 가장 낮고 이혼가능성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ENTP 유형은 긍정적 감정과 갈등조정방식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공통된 기질인 'NT'는 논리적·창의적 유형으로서 사고의 객관성을 중시하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강박관념과 완벽주의가 있으며, 따뜻함, 온정 등이 결여되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낀다(Jones & Sherman, 1997). 이러한 특성들은 'NT' 기질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적 요소가 관여하는 결혼생활이나 부부라는 긴밀한 이차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INFP 유형은 결혼만족도 점수는 가장 높고 이혼가능성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긍정적 감정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NF'가 열정적·통찰적 유형으로서 따뜻한 온정의 소유자이므로 부부관계에서는 'NT'와는 상반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들 INTJ, INFP, ENTP 유형을 나타낸 대상자들이 각각 2명에 불과하므로 향후 더 많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아내와 남편의 MBTI 성격유형의 일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I/E 지표가 일치하는 부부는 58.1%, S/N 지표가 일치하는 부부는 69.4%, T/F 지표가 일치하는 부부는 59.7%로 3개 지표에서는 일치하는 부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부보다 더 많았으나, J/P 지표가 일치하는 부부는 38.7%로 일치하지 않는 부부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일반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I/E 지표가 일치하는 부부는 53.1%, S/N 지표가 일치하는 부부는 70.1%, T/F 지표가 일치하는 부부는 51.7%로 본 연구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나, J/P 지표가 일치하는 부부는 53.6%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달리 일치하는 부부가 더 많았다(Yun & Lee, 2000). 이러한 결과는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의 경우 J/P 지표의 불일치가 부부갈등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Lee와 Kim (2005)의 연구에서도 J/P 지표의 일치형 부부보다 불일치형 부부에서 갈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치하는 지표의 개수는 4개 지표가 모두 일치하는 부부 8.1%, 3개 지표 43.5%, 2개 지표 19.4%, 1개 지표 24.2%였으며, 일치하는 지표가 하나도 없는 부부는 4.8%로 나타났다. Lee와 Kim (2005)이 일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개 지표가 모두 일치하는 부부 19.4%, 3개 지표 35.9%, 2개 지표 30.6%, 1개 지표 10.0%였으며, 일치하는 지표가 하나도 없는 부부는 4.1%로 나타나 2개 이상의 지표가 일치하는 부부의 비율이 본 연구의 결과보다 상당히 높았다. 이는 일반 부부에 비해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에 있어 성격유형의 상이성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일치여부에 따른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S/N 지표가 일치하는 경우보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남편의 이혼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07)이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의 일치여부에 따른 의사소통 점수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S/N 지표의 일치여부에 따라 아내의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변인은 조사하지 않았으나 Kong (2006)이 일반 부부와 부부클리닉 방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ng (2008)이 부부클리닉 방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 변인 간에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부부간에 S/N 지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혼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각과 직관이 서로 다른

부부들은 같은 사건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기 쉬우며(Harmon, 2000), 이는 이혼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Yun과 Lee (2000)의 연구에서는 4가지 모든 지표에서 일치하는 부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부보다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4가지 지표의 점수 차이가 클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일치되지 않았다. 한편 Lee와 Kim (2005)의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에서 지표의 일치개수가 많을수록, 즉 성격유형이 유사한 부부일수록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성격유형의 일치여부에 따라 갈등해결방식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지표의 일치성 여부가 결혼만족도와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 변인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Williams와 Tappan (1995)은 성격유형에서 유사성이 많은 부부는 상이한 부부보다 오히려 더 갈등이 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면 부부가 둘 다 외향형인 경우 서로 경쟁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어 경쟁하도록 중재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격유형이 유사할수록 결혼만족도와 긍정적 감정 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도 4가지 지표가 완전히 상이한 3쌍의 부부에서 나머지 부부들에 비해 결혼만족도와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이 가장 높았고 이혼가능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일반 부부와 클리닉 부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불확실하므로 향후 일반 부부와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아내와 남편의 성격유형이 ISTJ/ESTJ 유형에서 한국 표준치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 중에서 아내 혹은 남편의 성격유형이 ISTJ 또는 ESTJ에 해당하는 집단과 기타 유형의 집단으로 나누어 주요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ISTJ 또는 ESTJ 유형이 있는 부부에서 아내의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과 남편의 긍정적 감정, 남편의 갈등조정방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ISTJ 유형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위기상황에 처해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용의주도한 면이 특징이다. 배우자로서 혹은 부모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편이지만, 남성의 경우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으며 본인만큼 용의주도하지 못한 배우자를 질책하거나 불인정하는 경향으로 부부간의 불화를 가져올 수 있다(Jones & Sherman, 1997). ESTJ 유형은 유능한 행정가로서 조직적이고 추진력을 보이며, 사람보다는 일 중심으로 비능률적인 것을 참지 못한다.

ISTJ/ESTJ 유형의 공통점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격이며, 철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유형은 자신의 논리적 사고를 지나치게 신뢰하여 감정의 가치, 즉 자신이나 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을 무시하기 쉬우며, 이는 그들 스스로 감정적인 해소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나 감정적 이해가 부족한 맹점을 보일 수 있다(Williams & Tappan, 1995). 특히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고 선불리 판단하고 결론에 이음으로써 일방향적인 대인관계를 가지기 쉽다. 이러한 성격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아내가 이 두 가지 유형에 속할 때 아내의 이혼가능성이 높고 남편과 아내 둘다 긍정적 감정이 낮으며 남편의 갈등조정방식도 나머지 유형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특히 남편의 입장에서는 갈등상황에서 아내가 질책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성향이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며, 갈등 후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시도가 적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남편이 이 두 가지 유형일 때 그들의 아내 역시 부부간의 갈등 이후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적고 부부가 하나의 타협안에 도달하기가 어렵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ISTJ 또는 ESTJ 유형이 있는 부부의 경우 이들의 성격특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담자가 충분히 알고 부부교육 및 상담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직 선행연구가 부족하며 체계적인 이론적 근거가 충분치 않으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MBTI 성격유형의 각 지표별 일치여부에 따라서는 남편의 이혼가능성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ISTJ 및 ESTJ 유형과 나머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아내의 이혼가능성을 비롯하여 아내와 남편의 긍정적 감정과 갈등조정방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성격유형이 부부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부부상담에서 성격유형의 차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ISTJ 및 ESTJ 유형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각 성격유형의 강점과 맹점을 설명하여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고, 상호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갈등조정방식을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부부를 대상으로 일반 부부와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의 비교연구가 행해지기를 기대하며, 성격유형의 각 지표에서 부부간의 점수 차이가 실제로 결혼만족도 및 이혼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를 대상으로 각 배우자의 성격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을 조사하고, 성격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를 비롯한 주요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향후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MBTI 성격유형의 각 지표별 일치여부에 따라서는 S/N 지표의 일치여부에 따라 남편의 이혼가능성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ISTJ 및 ESTJ 유형과 나머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특히 아내의 성격유형이 ISTJ 및 ESTJ 유형인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이혼가능성은 높고,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의 성격유형의 불일치 정도보다는 ISTJ 및 ESTJ 유형의 여부가 위의 변인들과 더 많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상담자는 성격유형의 차이가 부부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해야 하며, 특히 ISTJ 및 ESTJ 유형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교육 및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부부가 상호 성격의 차이를 이해하고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중재방안이라고 본다.

REFERENCES

- Amato, P. R., & Hohmann-Marriott, B. (2007). A comparison of high- and low-distress marriages that end in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621-638.
- Borenstein, M., Rothstein, H., & Cohen, J. (1997). *Power and precis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 Botwin, M. D., Buss, D. M., & Shackelford, T. K. (1997). Personality and mate preferences: Five factors in mate sele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65*, 107-136.
- Choi, G. R. (1994). A study on types of family systems, marital conflicts and coping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Home Manage Association, 12*, 140-152.
- Choi, H. K., & Noh, C. Y. (1994). The types of marital problem solving behaviors among Korean married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Home Manage Association, 12*, 262-272.
- Davila, J. (2003). Attachment processes in couple therapy. In S. M. Johnson & V. E. Whiffe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pp. 124-143).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Gottman, J. M. (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 based marital therapy*.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 Gottman, J. M., & Notarius, C. (2000). Decade review: Observing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927-947.
- Harmon, M. J. (2000). Using Jungian type psychology to value complementary preferences in couples. In R. E. Watts (Ed.), *Techniques in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Vol. 1: The family psychology and counseling series* (pp. 17-23).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Jones, J. H., & Sherman, R. G. (1997). *Intimacy and type: A practical guide for improving relationships for couples and counselors*. Gainesville, FL: Center for Applications of Psychological Type.
- Jung, C. G. (1971).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E. J., Hwang, K. R., & Kwun, Y. U. (2007). Relationship among spouse's psychological type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0*, 15-26.
- Kim, J. T., & Shim, H. S. (1990). A validity study on Korean version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 44-72.
- Kim, J. T., Shim, H. S., & Je, S. B. (1995). *Theory, psychometrics application*. Seoul: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 Kim, Y. H. (1999).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6), 77-96.
- Kong, S. S. (2006). Influencing fa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in couples: Non-distressed couples vs clinical coup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 434-445.
- Kong, S. S. (2008). Impact of psychological factor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divorce proneness in clinical coup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 550-560.
- Korea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Institute. (2004). *Clinical application of Gottman's marital therapy model*. Seoul: Author.
- Kwon, J. H., & Chae, G. M. (1999).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 123-139.
- Lee, H. S., & Kim, K. Y. (2005). Relationship between the marital conflicts and conflict coping behavior according to their personality type consisten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Psychological Type, 12*, 51-79.
- Lee, I. S., & Yoo, Y. J. (1986). An assessment of the validity of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Korean Journal of Home Management Association, 4*, 1-13.
- Park, Y. H., & Ko, J. H. (2005). The effects of self and spouse's self-esteem, communication, conflict coping behaviors on marital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 65-83.
- Previti, D., & Amato, P. R. (2003). Why stay married? Rewards,

- barriers, and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561-573.
- Roach, A., Frazier, L., & Bowden, S.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 537-545.
- Rogge, R. D., Bradbury, T. N., Hahlweg, K., Engl, J., & Thurmaier, F. J. (2006). Predicting marital distress and dissolu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 156-159.
- Vinacke, W. E., Shannon, K., Palazzo, V., Balsavage, L., & Cooney, P. (1988). Similarity and complementarity in intimate couples.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4, 53-76.
- Weiss, R. L., & Cerreto, M. C. (1980). Development of a measure of dissolution potential.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8, 80-85.
- Williams, L., & Tappan, T. (1995). The utility of the Myers-Briggs perspective in couples counseling: A clinical framework.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3, 367-371.
- Yun, H. K., & Lee, S. H. (2000). The relationships among spouse's similarity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psychological types and marital communicati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Psychological Type*, 7, 1-21.